

그 다음에는 친환경유기농법으로 무공해 농산물을 재배해야 한다. 현재 유기농법으로는 저농약, 저질소 재배가 시도되고 있고 그 구체적 사례로 오리농법, 우렁농법, 참깨농법 등이 시도되고 있다. 그러나 이런 친환경농업은 집단재배가 되어야 하고 기술이 숙련되어야 한다는 애로도 있는 것이다. 이런 점은 농촌진흥청, 농협, 농촌공사 같은 농업관련기관의 적극적인 개입이 요구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의 실정은 믿을 수 있는 국가기관은 별로 없는 상황이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하였다. 우주와 이 인생의 주인공은 나 자신이다. 믿을 것은 나 자신뿐이다.

이 밥맛 좋은 쌀의 생산 재배기술의 지침서를 숙독하시고 나서 이제부터 전문영농, 기업영농, 경영영농, 가공영농 등 다양한 영농기법으로 이 위기를 돌파해 나가자. ㉔

연락처 : 류순열 / 010-6490-5530 / 063-221-5530

새로운 직파재배 기술 “무논골점파”

김정화 농촌지도자
농촌진흥청 기술지원국 작물기술과

무논골점파 재배기술은 초기생육이 우수하고, 잡초성 벼 발생을 방지할 수 있으며, 특히 기계이앙과 비교하여 수량과 품질의 차이가 없는 새로운 직파재배기술이다.

직파재배 현황

직파재배는 기계이앙에 비해 노동력은 25.1%, 생산비는 7.5%의 절감효과가 있으나 입모가 불안정하고, 쓰러짐과 잡초성 벼 발생이 많아 품질과 수량이 떨어지는 문제점이 있어 확대가 되지 않고 있다. 지난해에는 전체 벼재배 면적의 4.6% 내외인 44천ha를 재배하였다.

새로운 직파재배 - 무논골점파

무논골점파 재배기술은 무논(湛水)에서 5~7개의 종자를 균일하게 점뿌림(點播)하여 입모가 안정적으로 확보되어 초기생육이 우수하다. 또한 무논에서 파종을 하여 잡초성 벼 발생을 억제하고, 적당한 깊이로 문혀 잘 쓰러지지 않는 등 직파재배의 문제를 개선함으로써 기계이앙과 비교하여 수량과 품질의 차이가 없다.

무논골점파 재배기술

○ 품종의 선택

지역에서 장려하는 고품질 품종 중 잘 쓰러지지 않고 초기발아성이 우수한 직파적은 품종을 선택한다.

- 조생종 : 오대, 상주, 진부, 삼백, 운봉, 상산, 삼천, 대진, 금오, 신운봉
- 중생종 : 화성, 서안, 화중, 주안, 내풍, 광안, 안중, 서진, 화안, 간척
- 중만생종 : 일품, 대안, 일미, 화삼, 동안, 남평, 대산, 화남, 금남, 향남, 평안, 화랑, 동진1·2호, 호품, 황금노들

○ 종자준비

보급종을 사용하는 것이 가장 좋으며, 자가채종을 할 때는 잡초성 벼 등 다른 품종이 섞이지 않도록 한다. 범씨는 탈망기를 이용하여 까락이나 이삭가지를 제거하여 균일하게 파종한다.

종자는 소금물가리기(물 18ℓ +소금 4.5kg)를 하고, 범씨최아기를 이용하여 소독, 침종, 싹틔우기를 한다. 2일정도 싹틔우기를 하면 어린 싹이 1~2mm정도 자라 파종에 알맞은 상태가 된다(물기가 손에 묻지 않을 정도로 말려서 파종).

○ 파종 시기

재배지역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무논골점파는 5월 중순경에 파종하는 것이 입모수 확보에 유리하고 제초제 처리시기도 앞당길 수 있다.

지역	조생종	중생종	중만생종
중북부	5.1~5.25	5.1~5.20	5.1~5.15
중부	5.1~5.30	5.1~5.25	5.1~5.20
남부	5.1~6.5	5.1~5.30	5.1~5.25

○ 논 준비

복합비료 또는 완효성 비료를 논에 밑거름(질소-인산-가리, 9-4.5-5.7kg/10a)으로 주고, 파종 4일전 본 논 로터리, 정지작업을 끝낸다.

○ 파종 시기와 방법

파종은 본 논을 정지 작업한 다음 4일 후에 하고, 적정 파종립수는 5~7개 정도를 점뿌림한다(10a당 종자소요량 6kg 정도)

○ 물 관리와 잡초 방제

파종 후 10일간 논에 물을 대지 말고 관리하고, 잡초방제는 파종 10일 이후에 담수상태에서 제초제를 처리하고 잡초발생 상태에 따라 후기에 한 번 더 처리한다.

○ 본 논 중기와 후기관리

본 논 중기 이후의 병해충, 시비, 물 관리는 중모기계이양과 같으며, 특히 이삭이 팬 후 일찍 완전 물 떼기를 하면 수량과 품질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㉔

〈출처 : 농촌진흥청 농업기술 5월〉